



“하나 됨, 쉽지 않다”

한교연은 최근 종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기연과 한기총에 대한 몇 가지 결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하나 됨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교연 제공

한교연, 한기연에 “정관 합의 못하면 통합은 파기” 최근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통한 결의 사항 공개

한국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회연합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결의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교연은 자신들의 결의 내용을 지난 16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 김선규 전명구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한교연 측이 밝힌 결의 내용 전문이다.

1. 본회는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2017.08.16.)를 개최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하였다.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화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를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도록 한다.

3.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재를 득해 공문을 발송해 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박용국 기자

“국가인권위는 위험한 기관… 개헌 통한 헌법기구화 반대를”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서울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강연



서울법대 명예교수인 최대권 교수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대에서 열린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지금 이 개헌을 할 때나?”고 비판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논의와 맞물려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먼저 최대권 교수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교통·통제가 되지 않아 별의 별 것들을 다 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구청·민원 접어넣듯, 이익단체들과 이념단체들이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접어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접다한 민원사안 처리에 불과한 내용들을 헌법에 접어넣으려는 게기가 마련된다는 이유로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최 교수는 “수술을 하자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개헌하자는 것이다. 지금 바꾸자는 것이 헌법 차원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헌

조공단 등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겠느냐”고도 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인권위가 권고, 교육, 의견제시, 조정, 해외기관 협력 등 가능적인 일을 하는데, 이것이 헌법기관화 된다면 권리 분립, 견제, 통제 등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는 장치가 없다”고 말하고, “한쪽 편향이 되어도 중립으로 만드는 장치가 없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라 했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념적으로 진보 쪽에 서 있는데, 이것이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최 교수는 개헌 내용 가운데 ‘양성평등→성평등’ 표현 변경과 ‘성적지향’ 등의 개념이 은연 중 대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도 표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반대하는 것이 개헌 내용 가운데 이러한 동성애·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첨경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헌법을 신설해서 쉽사리 고치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은 국가가 만든 권리가 아닌, 국가 이전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자연권인데, 이미 주어진 날 때부터 태고난 ‘천부인권’”이라며 “동성애·동성혼이 천부적인 것인가? 개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데 헌법을 통해서라도 아예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

했다.

때문에 개헌 내용에 동성애·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최 교수는 “동성애가 정신병 일종이나, 태고난 것이나 등의 논란은 분분하겠지만, 조국적인, 전국가적인, 초월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라 했다. 또 그는 “헌법9조에 ‘전통문화·창달’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동성애·동성혼이 전통문화나”고도 지적하고, “가치가 긍정적인 아니라면 전통문화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개헌하는 이들은 헌법 제9조도 손을 보려 하더라”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군동성애에 합리화도 반대하고, 동성애는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과도 반대하면서 “이런 동성애·동성혼 등을 굳이 개헌에 넣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관계한 헌법교수를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다. 길래 ‘당신 아들이 동성애를 한다면 어찌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하더라.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동성애 하는 것은 동의 못하고, 다른 자식 동성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최 교수는 이런 것이 학문 윤리적으로 맞는 일 아니냐며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것이 인격이다. 자기 자식에게 추천할 수 없는 것을 남의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자신 있는가. 나는 자신 없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다음 달 첫 한국 방문 시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할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치코널(센터카) 삼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한 시 DMZ 방문은 도발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최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문 계획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 모두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 다음달 7일 방한 “文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오

늘(1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국회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구그이 소리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4. 한국에서의 목회 및 교육 활동

1) 남대문 교회와 대한신학교

●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선 목사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구내에 있던 남대문 교회로부터 정식 청빙을 받게 되어 1944년 남대문교회 제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 김치선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뒤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44년 일제강제점령 막바지의 위험한 상황에서 서울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기도회를 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었고 김치선 목사는 그 암담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매일 새벽제단을 쓸으며 강단에서 엎드려 민족을 위하여 한 없이 울었다고 한다.

● 이처럼 열심 있는 기도와 은혜로운 설교로 인하여 남대문 교회는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었고 마침내 남한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당시 남대문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회가 서둘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다니려오는 나그네들이나 남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

●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이 광복과 더불어 김치선 목사는 이제껏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민족의 복음화의 열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 바로 이 때부터 그가 전개한 운동이 3천만의 삶일조 3백만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운동이었다. 그는 매 설교 시마다 “한국에는 2만 8천의 자연부락이 있

소. 동리마다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성도들이 집집마다 감나무 한 구루씩 심어서 그 수입을 끓방 선교비에 투자한다면 민족복음화는 물론 세계를 복음으로 떠오리이다”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부터 그를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렀다.

● 김치선 목사는 이처럼 전개한 삼백만 전도운동으로 인해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70여명 이상의 목사가 참여하는 삼백만 부흥전도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2만 8천 동네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70여명의 목사가 선교목사로 전국에 파송되는 일정난 역사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공산 계열리들의 잣은 출발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까지도 거점없이 가서 전도를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대한신학교(現, 안양대학교)’가 ‘장로교 야간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남대문 교회당에서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김선우 목사, 윤필성 목사를 비롯한 몇몇 유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하였는데 초대 교장은 양평 여자 신학교 교장을 지낸 윤필성 목사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서울 서초문구(현 중앙일보사 근처)에 건물을 얻어 신학교를 이전한 후 김치선 목사 자신이 친히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50년 1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大韓神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김치선 목사는 이처럼 대한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먼저, 그가 전개하고 있던 삼백만 부흥전도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또한 그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목회자를 배출함으로써 그가 추진하고 있던 삼백만 전도사업을 조속히 완수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 6.25 동란

1950년 5월 24일, 대한신학교가 드디어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남자만 18명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25일 고봉·高峰 김치선(1899-1968) 민족을 사랑하며 구령의 열정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목사, 신학자, 교육자였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생애와 사상과 함께 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의 관점에서 사랑했던 ‘애국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2. 김치선 목사는 장로교회 제 1세대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와 신학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유학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베중앙교회, 신주쿠중앙교회, 도쿄 메구로교회, 남대문교회, 창동교회, 청파중앙교회 등에서 목회했으며, 1944년에 귀국하여 1948년에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설립했고, 1961년에는 대신교단의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도 그는 목회를 쉬지 않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전도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의 재건과 새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해방 후 그는 전도운동 및 구령·救靈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재건을 추진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 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신학 박사였음에도 신학의 학문성보다 신학이

를 개척하고 시무하게 된다. 이는 김치선 목사가 전쟁 기간 동안 내내 장로회 종회 신학교 교수로 제직하면서 대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남대문교회에서는 사실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선 목사는 이곳에서 시무하면서 대한신학교를 운영하였고, 또한 종회신학교에도 계속해서 출강하였다.

맺는 말

1.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린 고봉·高峰 김치선(1899-1968) 민족을 사랑하며 구령의 열정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목사, 신학자, 교육자였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생애와 사상과 함께 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의 관점에서 사랑했던 ‘애국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2. 김치선 목사는 장로교회 제 1세대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와 신학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유학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베중앙교회, 신주쿠중앙교회, 도쿄 메구로교회, 남대문교회, 창동교회, 청파중앙교회 등에서 목회했으며, 1944년에 귀국하여 1948년에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설립했고, 1961년에는 대신교단의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도 그는 목회를 쉬지 않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전도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의 재건과 새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해방 후 그는 전도운동 및 구령·救靈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재건을 추진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 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신학 박사였음에도 신학의 학문성보다 신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복음전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에 서서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신학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과 열정은, 1944년 남대문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한 기도와 회개, 그리고 전도운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이 살길은 오직 기도, 회개 그리고 전도뿐이라 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으로 300만 구령운동을 조직화하였는데 해방 당시 기독교 인구가 30만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펼친 300만 구령운동은 이 땅의 복음화에 쏟은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300만 구령운동을 지속하면서 그는 신학도들에게 “2만 8,000여 우물을 파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은 이 우물을 파는 사업이다”라고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학도들이 다른 것을 그만두고 일생 우물만 파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00만 구령운동, 2만 8,000동네에 우물을 파라는 그의 열정은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근본이 단순히 조국의 부강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은 그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오늘 날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하여 구령사역으로 이어가는 회개의 영이 이 땅에 다시 부어지

기를 기도합니다.

■ 대한신학교의 특성

(1) 대한신학교가 처음부터 야간신학교로 출발하였다.

이는 북에서 내려 온 사람들을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낮에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이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치선 박사는 이들로 하여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신학교를 야간 신학교로 운영하였다.

(2) 이 학교가 처음부터 지적인 추구보다는,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 역시 고차원적인 학문성을 추구하는 과목보다는 복음전도와 성도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과목들이었다. 고차원적인 신학 교육보다는 순수한 성경공부와 전도 운동을 위주로 교과가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영농법과 침술법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이 학교가 초 교파적이었다.

학교 설립 초기부터 이 학교의 강사진이 장로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변홍규 박사를 비롯한 다수의 타교단 출신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초교파적인 학교로 시작한 데에는 300만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였기에 3천만의 십일조 300만 구령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교파적 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어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였으나 김치선 박사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민족의 복음화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전도를 위하여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 교파적이었던 것이다.

글=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경건회 설교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시고 회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개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하였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 우편의 죄수는 강도였습니다. 누가 봄에 범죄자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밭을 놀려 달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해서 망했습니다.

30년 전 좀 저히 교회를 다녀가신 김광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 하나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라는

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셨지요. 반면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았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나라와 가정이 다 망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은 베드로와 배반자가 된 가룟유다를 비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통함으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의 목사님의 집에 10년 정도를 다니면서 성경공부도 하고 말씀도 자주 들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늘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늘 말씀하시며 피의 복음, 회개와 죄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벗겨주시니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개인과 나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은

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독교교도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죄수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다. 음해를 받아 교도소에 온 것입니다.’ 라며 다른 사람과 환경을 덧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에서 해주는 일은 ‘자신이 죄인’ 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잘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거의 없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저희 교도소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정관들이 죄수들과 함

께 밥을 먹습니다. 과거에는 죄수들이 무슨 해고지를 할 줄 모르니까 불안해서 같이 밥을 먹지 못했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의 영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등에 업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10년을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월었습니다. 계리회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 차별 철폐운동과 그 영향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I)

III. 성 차별 철폐운동
(젠더 주류화 운동)은 유사 종교 운동



기독교학술원장·살롱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

1. 사회적 성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사회 지향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동등권을 요구했지만, 1990년 초 아래로 “제3의 물결”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능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등등한 지위를 요구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개하는 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차별”이라는 용어를 빌려 성 주류화 운동을 성 차별 철폐운동으로 부치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남녀 성차별을 방지하는 운동으로 알지만 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정적 구별 자체를 보고 이를 철폐하자는 이데올로기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모든 남녀의 성적 동일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사종교(eine Quasi-Religion)로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유사종교란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지니는 성격, “독선적 타당성 주장, 절대성 주장, 종체성 기대, 인간 삶의 종교적 의식화(출생례, 청년례, 혼인례, 장례)”를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그 예는 모택동주의, 국가사회주의, 일본 군국주의 등 전제주의 운동, 현대스포츠 등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성 차별 철폐운동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 부인처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로서 이는 성 차별 철폐운동으로 부치고 있다. 성차별 철폐운동은 규정하는 것은 예전에 있는 숨어 있었으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coming out), “성적 지향”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가이드라인에 슬그머니 넣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할 뿐 아니라 이상애 자들을 역차별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뛰어축제로서 이 동성애를 전 국민에게 금지시키려는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 속에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이 숨어 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를 갖고 놀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boy’나 ‘girl’을 구분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에버하드의 성-중립적 교육 비판이 정당하다고 본다.

컴퓨터 스크린에서 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착(倒錯, perversion)은 오늘날 소동 고모라처럼 현대인의 매일 행위가 되고 있다. 음란물이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직업, 모든 연령층을 하고 흡빨 적시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우리 한국사회는 이러한 미국사회의 포르노를 흥수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늘날 인터넷 취급에 기민한 청소년들은 무선(無線)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접근되는 너무나 낯뜨거운 포르노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도착된 성 포르노의 폭격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독일 튀빙엔대 은퇴교수 세제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페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가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하였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대항하라”(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는 제목 강연에서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강연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상상적으로 비판한 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난고 있는 동성애 운동을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상상적 관점에서 보다 깊이 조명해 주었다.(Peter Be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 젠더 이데올로기 대항하라! 2016년 6월 10일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바이어하우스에 의하면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블레비키 혁명과 더불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3의 세계적인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혁명이었고, 블레비키 혁명이 사회적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었다면, 성 차별 철폐운동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의 질서, 결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인류학적 혁명(cultural anthropological revolution)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인간에게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근본적인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 창조의 법을 부정하는 반신론적이며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 주의(Genderismus, genderism)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사탄적인 원천을 지니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의 유럽의 계몽주의가 세계 문명에 가져온 고유한 중심개념인 자유 개념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진리와 책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자유”的 개념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개념으로 왜곡된 “자유”的 이름으로 책임과 의무를 파기하거나, 역기능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가 범으로 합법화된 일부 사회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양성애(bisexuality)를 거부하는 이성애(異性愛, heterosexuality)자들은 심지어 사회나 언론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차별한다’는 “호모포비

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자)로 지탄받거나, 정신 이상자로 취급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IV.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

1.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

1) 21세기의 세계적인 혁명: 프랑스혁명, 블레비키 혁명 이후 인류학적 혁명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세계적인 혁명 프로그램이다. 바이어하우스가 지적한 바같이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두 번에 걸쳐 선행된 거대한 혁명들 즉, 정치적인 신분제를 전복한 프랑스 대혁명(1789)과 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블레비키 혁명(1917) 이후, 1968년에 일어난 세 번째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적 혁명인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에는 그 자체로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인 뿐 아니라 교활 프란치스코가 강조했듯이, 사탄적인 근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와 인간을 자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문화의 가치판단의 기반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인류문화학적인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성질로서 인류사회를 독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 주기경단 전체 모임에서 교활 베네딕트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전승된 덕성, 도덕 그리고 정절(貞節)과 같은 송고한 가치 개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내용들(전통 거부, 해방, 자유, 쾌락, 난잡 등)로 포스트모던 문화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인류문화학적인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성질로서 인류사회를 독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16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그 곳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서구 모더니즘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초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도덕,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하버마스는 분석했다.(J. Habermas, “Ein Gespräch über Gott u. die Welt,” in: ders., Zeit der Übergänge (Frankfurt: Suhrkamp Verlag, 2001), 174f.) 프랑크푸르트학파 출신인 비판사회학자 하버마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모더니즘이 가져온 정의, 사랑, 평등의 보편주의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유래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3) 무규범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자성소위 앉아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불법한 자”(anthropos tees anomias)를 보았다.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를 미리 주목하고 있었다.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운동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성 문화를 제거하고 이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라는 동성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성문화 혁명운동이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중반기에 있었던, 이전의 다른 현대적 이데올로기 운동들 즉,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주의, 스탈린주의, 파시즘, 나치주의와 군국주의 등 전제주의(totalitarianism) 그리고 헬렐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에 의해 창설된 프로이드-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주고 있다. 성 차별 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이 갖는 적그리스도의 길이란 전통적인 규범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가치와 규범의 혼돈과 혼란을 조래하는 무규범(Anomie)의 상태를 말한다.(계속)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미국땅에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잘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작고, 오래되고, 불편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편집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어스 이호재

글정 아일스워스 | 그런 바비란 대출언론 | 책상 이벤트 | 16쪽 16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04-7055